

농업 종사자 “노지 디지털 영농기술 도입 희망”

수요조사 분석 결과... “병해충·잡초 관리, 수확 등 어려움 느껴 디지털 기술 도입할 경우 노동력 절감·생산성 증대 등 기대효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노지작물 재배 현장의 어려움과 디지털화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노지 영농활동 전주기 디지털화·스마트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5일부터 30일까지 약 4주간 청년농업인, 영농기술 지도인력 등 일선 농업 종사자 34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응답자 중 20~30대가 57%로 가장 많았다.

조사 결과, 농업 종사자들은 노지 영농활동 중 병해충·잡초 관리와 수확 작업으로 인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디지털 영농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해충 관리(394건, 복수응답)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수확작업(385

건), 제초관리(336건) 순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경운·정지단계에서는 ‘맞춤형·적정 농기계 수급·운용’(38.5%)이 가장 힘들다고 답했으며, 파종·정식(29.0%)과 수확작업(31.47%) 단계에서는 ‘노동력(인력) 수급’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물관리(28.0%), 제초관리(23.5%) 병해충 관리(25.9%) 단계에서는 ‘적정 작업시기 결정’이 가장 힘들다고 답했다.

농업 종사자들은 경운·정지 단계에서 ‘맞춤형 농기계·작업기’ 기술을 가장 필요(40명, 64.5%)로 했다. 또한, 파종·정식 시 노동력(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농기계·작업기(52명, 61.9%)’ 기술이 지원되기를 원했다.

물관리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적정 작업시기 결정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영농 의사결정 지

원(40명, 58.8%)을 희망했다. 영농 지식·경험·노하우 부족 문제가 가장 큰 양분관리 단계에서는 ‘적정 농작업 기술지도(63명, 71.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병해충 관리 단계에서는 ‘물방 기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해 적정 농작업 기술지도(75명, 77.5%)’와 ‘체해 예측 및 대응 정보(73명, 71.6%)’ 기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초관리 단계의 가장 큰 어려움인 ‘적정 작업시기 결정과 관련, ‘무인·자율형 첨단기계’ 기술(42명, 42.4%)이 도입되기를 희망했다. 수확관리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노동력(인력) 수급이다. 이는 ‘맞춤형 농기계·작업기(54명, 44.6%)’와 ‘무인·자율형 첨단기계(53명, 43.8%)’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노지농업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디지털화 기술이 개발된다면 농업

종사자의 81.7%가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8.3%가 기술개발을 위한 영농 데이터(자료) 수집에 협조하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디지털 기술 도입 의향을 묻는 질문에 20~30대 청년농업인의 87.1%가 그렇다고 답해 일반 농업인(77.1%)보다 10.0% 더 높았다. 청년 농업인들의 노지 농업 디지털 기술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일반 농업인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지농업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노동력 절감(75.8%), 생산성 증대(55.8%), 비용 절감(50.3%)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노지 농업의 디지털화 기반 구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기획하고 있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가칭) 데이터 기반 노지농업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의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할 계획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노지 농업의 디지털 전환 기술은 고령화, 농촌 소

멸, 기후변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안에 대응하면서 농작업 편리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국가 주도의 선제적 기반 구축과 기술 접인이 필요한 영역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개발될 노지 농업의 디지털 전환 기술이 향후 구현된다면 누구나 쉽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상경 과장은 “기존 농업분야 첨단기술 개발은 시설·축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이제는 우리나라 농경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노지농업의 디지털화 기술개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방혜선 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지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기술개발을 중점 기획함으로써 영농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3차원 공간정보 품질진단 기술 확보

LX, 전체 데이터 품질진단 자동화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가 3차원 공간정보의 품질진단 기술 확보로 SOC기반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LX공사는 지하정보 데이터의 품질검사 시 표준 육안검사를 통해 부분적으로 진단하던 방식을 3차원 공간진단 시스템 구축을 통해 표본검사가 아닌 전체 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으로 자동화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3차원 공간진단 관리시스템은 지하공간통합 지도 제작에 필요한 지하시설물과 지하구조물의 품질을 3차원으로 진단해 SOC기반 공간정보의 품질을 높여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로써 지하시설물 6종(▲격입 ▲폭길 ▲이격 ▲중첩 ▲절단 ▲급속소)과 지하구조물 3종(▲지표면 도출 ▲구조물 중첩 ▲축적 통관 오류)에 대해 각각의 오류를 진단해 지하공간정보 구축 초기에 높은 수준의 품질을 갖출 수 있다.

또한 공간정보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공간정보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온라인에서 조사서 작성, 품질진단 오류 조회, 1:1 상담 등으로 품질진단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LX공사는 3차원 공간진단 관리시스템을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혁신적 플랫폼기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3차원 공간정보의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LX공사 최승욱 공간정보본부장은 “앞으로 SOC 핵심인프라인 지하시설물 등 기반시설의 맞춤형 3차원 품질진단 기술 개발로 고품질의 지하 공간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바이오식품산업 현장실무인력 양성

식품 품질관리사·시험분석운영자 양성과정 수료식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고용노동부와 전북도의 지원으로 예비취업자 20명을 대상으로 6주간(188시간) 식품 품질관리사 양성과정 2기와 시험분석운영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24일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2021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우수인재의 역량강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도내 예비취업자를 대상으로 식품 품질관리사, 분석기기 운영자 생산공정관리사 등 식품기업의 필수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품질관리사 교육은 식품기업에서 필요한 품질제보보고서, 공정흐름도 작성, CCP설정 방법 등의 직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하며, 시험분석운영자 양성과정은 미생물검사, HPLC, GC, PCR 등 전문 분석기기

운용방법을 다양한 기기장비 실습 교육을 통해 입사 시 바로 현장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올해는 총 4기수를 운영해 예비취업자 40명을 교육, 38명이 수료했으며 현재 취업인원은 20명(50%)을 달성했다. 교육 수료생들은 지속적인 바이오진흥원의 사후관리 지원으로 대부분 바이오식품관련 우수기업으로 채용연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오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전북의 대표산업이자 성장산업인 바이오·식품 산업에 안정적인 인력수급과 역량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과 실무형 인재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담당자(063-210-6586)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4일 ‘제2벤처봄’ 시대를 맞아 지역 신(新)산업 중소벤처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를 타파하고자 제2차 전북지역 신(新)산업 규제발굴 추진단을 개최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신산업분야 규제 발굴·해소’

전북중기청, 규제발굴 추진단 열고 현장 목소리 청취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24일 ‘제2벤처봄’ 시대를 맞아 지역 신(新)산업 중소벤처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를 타파하고자 제2차 전북지역 신(新)산업 규제발굴 추진단(이하 규제발굴 추진단)을 개최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규제발굴 추진단은 신(新)산업 분야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경쟁애로를 해소하고자 전북중기

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기술보증기금 전주·익산지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사)전북창업공유지원단 등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이 모여 결성한 회의체다.

이번 ‘규제발굴 추진단’ 간담회는 전세계가 메타버스를 주목하는 시대에 맞춰 우리 지역에서 각광받고 있는 홀로그램 산업에 영위하고 있는 (주)홀로랩, (주)아이에이피, (주)케이홀로 등이 참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홀로그램 산업의 비전, 기업별 중점사업, 규제 및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참여한 각 기관은 참여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안내했으며, 향후 홀로그램 기업으로부터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들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읍부조관 등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규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제2벤처봄 시대를 맞아 전북지역의 경제와 산업의 혁신은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며 “지역 내에서 많은 혁신기업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가 완벽히 사라지는 그 날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고용노동부와 전북도의 지원으로 예비취업자 20명을 대상으로 6주간(188시간) 식품 품질관리사 양성과정 2기와 시험분석운영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24일 수료식을 가졌다.

추석 명절 11조원 규모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10월 8일까지 중기 등 대상 신규자금 5조 등 총 11조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기요 본부장)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전국적으로 11조원 규모의 추석 명절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석 명절자금 지원기간은 오는 10월 8일까지이며, 자금단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자금 5조원, 기한연장 6조원

씩 총 11조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금 용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대출 모두를 포함하며,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추석 명절자금 특별우대금리 0.1%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대출 상품에 따라 최고 1.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장기요 본부장은 “금차 추석 명절자금 특별자원을 통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전주농협, 조합원 자녀 53명에 장학금

대학생 1인당 200만원씩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대학에 재학 중인 조합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총 1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장학생은 이사회와 심의를 거쳐 53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에게는 200만원씩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전주농협은 비영리단체로서 각종 사업으로 얻어진 수익을 다시 조합원에게 환원해주는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원은 교육지원사업 중 농민 조합원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조합원 복지사업의 일환이다.

전주농협은 지난 1988년 최초 15명에게 200만원씩 지급한 것을 시초로 매년 지속적으로 대상자 및 장학금을 증



전주농협은 대학에 재학 중인 조합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총 1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실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2086명에게 총 22억218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해 오고 있다.

임인규 조합장은 “한 평생 농사를 지어 생산한 우리 농산물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국가 발전에 초석이 된 농민이야말로 진

정한 애국자”라며 “팬데믹 장기화 및 갈수록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꿈과 용기를 갖고 학업에 매진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이 시대의 큰 인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농협상호금융,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콘텐츠 공모전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주제로 동영상·카드뉴스·웹툰 등 총 3개 분야를 공모한다. 참여를 위한 경우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품과 함께 이메일(phishingcontest@fss.or.kr)로 제출하면 된다.

총 상금은 2000만원으로, 대상 1명(300만원), 최우수상 3명(각 200만원) 등 14명(합)을 선정해 상금을 지급한다. 수상작은 향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과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